

Care Together Cure Together

고려소식지



전국 요양병원 최초
고려대련요양병원 브랜드 대상 수상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 의료기관



(2024.10.19~2025.10.18)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2023.03.01~2025.02.28)
헬스조선
좋은 요양병원 선정



2026 Spring VOL.40 고려대련요양병원 홈페이지

K O R E A B E S T B R A N D A W A R D S



2026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大賞 Korea Best Brand Awards

‘전국 요양병원 최초’ 고려대련요양병원 브랜드 대상 수상



2026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관련기사 14면



재활·항암·투석·요양
고려대련요양병원
GORYO DAERYEON MEDICAL CARE CENTER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새마을로 318-12
대표전화 054 - 241 - 1011
홈페이지 www.goryomcc.com



프리미엄 요양원
고려시니어케어
GORYO SENIOR CARE DALJEON TOWN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189
대표전화 054 - 262 - 2022
홈페이지 www.goryoseniorcare.com



대형 주간보호센터
고려데이케어센터
GORYO DAYCARE CENTER DUHO CENTER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학전로127 2층
대표전화 054 - 246 - 3033
홈페이지 www.goryodcc.com

환자중심(Patient-Centered)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간보호센터·요양원·요양병원이 연계된 의료복지복합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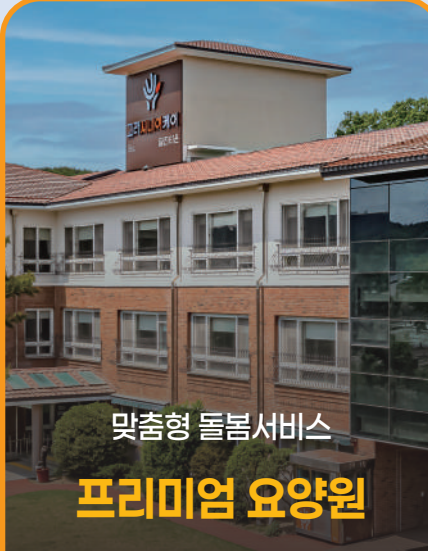


낮 동안의 돌봄

대형 주간보호센터

100여 명의 어르신과 함께
여러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낮시간에 운영되는
주간보호센터
(Daycare Center)

☎ 054-246-3033






맞춤형 돌봄서비스

프리미엄 요양원

자연과 함께 숨쉬는
100인실 규모의
프리미엄 돌봄(Care)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
(Nursing Home)

☎ 054-262-2022





재활·항암·투석·요양

치료하는 요양병원

환자분을 최우선
(Patient-First)으로 생각하는
300병상 규모의 환자 중심
요양병원
(Long-Term Care Hospital)

☎ 054-241-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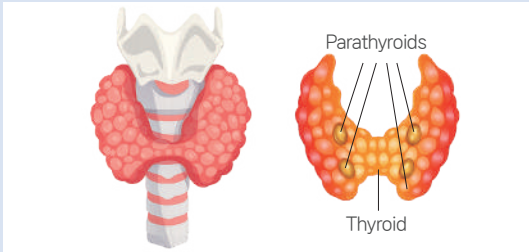


포항 지역에서 어르신과 환우들이 건강하게 삶을 이어가고, 필요에 따라 의료와 복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의료복지복합체'입니다.

요양병원, 프리미엄 요양원, 주간보호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환자와 보호자가 상황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의료·복지 복합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호준의료재단 고려대려요양병원 고려소식지는 고려대려요양병원, 고려시니어케어(달전타운), 고려데이케어센터(두호센터) 고객에게 드리는 다양한 의료정보와 환우들의 병원소식을 전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고려소식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 재단의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제2017-40호

발행인 | 박영희

편집 | 전략실

발행처 | 의료법인 호준의료재단 고려대료양병원

대표전화 | 054) 241-1011

주소 | 37653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새마을로 318-12

홈페이지 | <http://www.goryomcc.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goryomcc>

의료

의학칼럼 노인성 만성질환, ‘질병’을 넘어 ‘어르신’의 삶’을 돌봅니다	04
특별기고 통합돌봄이 만드는 변화	06
의료정보 손닥터의 투석실 이야기(여섯 번째)	08
암 식이 수술 후 회복을 위한 단계별 요리	10
기관 감사패 수상 업무 협력 간담회	12
간호사(RN) 휘장식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슴에 담다	13
브랜드 대상 수상 2026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수상	14

고려시니어케어 달진터운

NEWS 지역사회 문화공연, 설 맞이 나비정원 꾸미기, 봄과 함께 찾아온 생신	16
--	----

고려데이케어센터 두호센터

NEWS 이미용 재능기부 업무협약, 아침 루틴 소개 1, 2월 생신 잔치, 난타공연, 송림밴드 공연	18
--	----

나눔

아름다운 우리의 얼굴 고려대료양병원 황 옥 총무과장	20
암 병동 힐링 프로그램 봄 맞이 꽃 화분 만들기	22
암 병동 봄 소풍 오어지들레길 투어	23
개원 7주년 기념 빵 나눔, 설 맞이 전통놀이	24
산불 대비 대피훈련	25
지도 점검 실시 복구보건소	26

병원소식

기타 병원소식	27
친절직원 소개	28
신규직원 소개	29
진료부 소개	30
요양병원 입원대상 안내	31
외래진료 시간	32

노인성 만성질환, ‘질병’을 넘어 ‘어르신’의 삶을 돌봅니다



고려대연료양병원

예재명 진료과장

- 산부인과 전문의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의 손에는 대체로 여러 진료과에서 받아 온 두툼한 약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 진통제 거기에 위장약과 수면제까지 있습니다. 현대 노인의학에서 단 하나의 질병만을 앓고 계신 어르신을 뵈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여러 질환이 마치 도미노처럼 엮혀 있는 상태를 의학 용어로 '다중이환'(Multimorbidity)이라고 부릅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우리 사회에도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과, 그 곁을 지키며 애태우는 보호자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성 만성질환의 진정한 의미를 짚어보고, 요양병원에서의 올바른 치료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 노인성 만성질환의 종류

노인성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보다는, 수십 년간 신체에 누적된 변화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오랜 세월 펌프질을 해온 심장과 혈관은 점차 탄력을 잃고 뻣뻣해집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이 발생하고, 미세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졸중(중풍)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신경 퇴행성 질환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치매와 파킨슨병이 있습니다. 뇌세포가 점진적으로 손상되면서 기억력을 잃어가거나, 손발이 떨리고 보행이 어려워져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크게 앓아갑니다.

근골격계 질환 평생 체중을 지탱해 온 무릎과 허리의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퇴행성 관절염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여기에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골다공증과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동반되면, 가벼운 엉덩방아에도 고관절이 골절되어 기나긴 침상 생활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사 및 내분비 질환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대표적이며, 노년기에는 합병증 관리가 더욱 까다로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질병의 진짜 원인, '염증'과 '예비능'의 고갈

그렇다면 이러한 노인성 질환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체가 고장 나듯' 생기는 것일까요? 현대 의학은 이를 '인플라메이징 (Inflammaging, 염증성 노화)'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누적된 산화 스트레스와 미세한 만성 염증이 전신을 돌아다니며 혈관을 갇아 먹고, 뇌세포에 나쁜 단백질을 축적하게 되며 근육을 녹여내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어르신들의 '예비능 (Reserve)'감소입니다. 예비능이란 신체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방어 능력을 말합니다.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오래된 스마트폰 배터리'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면도 잘 켜지고 정상 작동하는 것 같지만, 날씨가 조금만 추워지거나 앱을 여러 개 실행하면 배터리가 순식간에 방전되어 전원이 꺼져버립니다.

어르신들의 몸도 이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시다가도, 가벼운 감기, 약간의 수면 부족 혹은 약이 한 알만 바뀌어도 이 작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폐렴, 패혈증, 섬망과 같은 치명적인 응급 상태로 급격히 무너지곤 하십니다.

3. '완치(Cure)'를 넘어 '포괄적 돌봄(Care)'으로

이처럼 노인성 만성질환은 단일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인 노화와 염증, 그리고 예비능의 고갈이 빚어낸 복합적인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급성기 병원처럼 무리하게 특정 질병 하나를 뿌리 뽑으려는 '완치'에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무리한 치료가 어르신의 남은 체력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남아있는 신체 및 인지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통증을 줄여드리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치료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처방 최적화입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무분별하게 늘어난 약은 체내에서 충돌하며 어지럼증과 낙상을 유발합니다. 간과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을 위해 전문의의 꼼꼼한 검토로 불필요한 약을 과감히 줄여 부작용을 차단합니다.

둘째, 전인적인 포괄적 노인평가입니다. 피검사 수치만 보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인지 기능, 우울감, 식사량, 보행 능력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자 개개인의 체력과 상태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치료 목표를 세웁니다.

셋째,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재활 치료입니다. 침상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은 물 빠지듯 사라집니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가 한 팀이 되어 굳어진 관절을 풀어주고, 걷고 삼키는 등 삶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능을 지켜냅니다.

넷째, 24시간 철저한 감염 및 욕창 예방입니다. 면역력이 바닥난 어르신들에게 감염과 욕창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숙련된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곁에 상주하며 수시로 체위를 변경하고 피부 상태를 살펴,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세심한 관리를 제공합니다.

요양병원은 단순히 질병을 안고 계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공간이 아닙니다. 복합 만성질환으로 인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전문 의료 서비스와 내 가족을 대하는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동시에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필수적인 치유 공간입니다. 모든 고령자분들께서도 체내 염증이 쌓이는 것을 막고 예비능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평소 꾸준한 예방과 건강 관리를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함께 돌보는 지역, 통합돌봄이 만드는 변화

돌봄은 오랫동안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여겨져 왔다. 누군가 아프거나 나이가 들면 가족이 곁에서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가족 구조가 변화한 지금, 이러한 방식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기간은 길어졌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가족의 여건은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통합돌봄사업이다.

통합돌봄은 의료, 돌봄, 복지,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그동안 나뉘어 제공되던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중심 돌봄모델이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원들을 묶어 삶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왜 통합돌봄이 필요할까?

기존의 돌봄체계에서는 도움이 필요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병원, 요양기관, 복지관, 행정기관을 각각 찾아 다녀야 했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와 가족은 지치고, 돌봄의 공백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통합돌봄은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한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돌봄을 다시 구성한다. 이 변화는 돌봄을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함께 이어가는 과정'으로 바꾸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기존 돌봄체계와 통합 돌봄체계의 차이 >

구분	기존 돌봄체계	통합 돌봄체계
기준	기관·제도 중심	사람·삶 중심
이용방식	개별 신청	통합상담·연계
지원형태	단편적·일회성	지속적·맞춤형
생활공간	시설 중심	지역·가정 중심

통합돌봄은 어떻게 다를까?

통합돌봄의 핵심은 사람 중심이다. 질병이나 장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본다.

건강 상태는 어떤지,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집안 환경은 안전한지, 가족의 돌봄 여건은 어떠한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지원을 연결한다. 이를 통해 돌봄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 이 서비스들은 각각 따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조정되고 연결된다.

< 통합돌봄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 >

분야	주요 내용
의료	방문진료, 방문간호, 건강관리
돌봄	요양보호, 일상생활 지원
복지	복지관 프로그램, 정서 지원
주거	주거환경 개선, 안전 점검
연계	사례관리, 서비스 조정



살던 곳에서 이어지는 돌봄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살던 곳에서의 돌봄'이다. 익숙한 동네, 익숙한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큰 안정감을 준다.

병원 치료 이후에도 방문진료와 방문간호가 이어지고, 재가요양과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돌봄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한 불안은 크게 줄어든다. 이는 돌봄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통합돌봄이 가져오는 변화>

변화 전	변화 후
퇴원과 동시에 돌봄 공백	퇴원과 동시에 돌봄 연계
가족 중심 돌봄 부담	지역과 역할 분담
시설 이용 의존	가정, 지역 중심 생활



가족의 부담을 나누는 돌봄

돌봄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기 쉽다. 특히 돌봄이 장기화될 경우, 신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경제적 부담도 함께 커진다. 통합돌봄은 이러한 부담을 가족 혼자 떠안지 않도록, 지역이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든다. 가족은 돌봄의 주체이지만 모든 책임을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는 돌봄이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변화다.



지역이 함께 만드는 돌봄 안전망

통합돌봄은 특정 기관 하나의 사업이 아니다. 의료기관, 요양기관, 복지관, 행정기관, 민간자원,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지역 공동체 기반의 돌봄 안전망이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될 때 돌봄은 훨씬 풍부해진다. 중복 지원은 줄고, 꼭 필요한 돌봄이 제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다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통합돌봄이 만들어갈 앞으로의 모습

통합돌봄사업은 아직 진행중인 변화다. 현장에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합돌봄이 돌봄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두지 않고, 지역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 순간, 누군가는 병원에 있고 누군가는 집에 있으며, 또 누군가는 지역의 돌봄 현장에 있다. 통합돌봄은 이 모든 순간을 하나로 잇는 연결의 힘이다. 함께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통합돌봄사업은 오늘의 정책을 넘어 내일의 우리 모두를 위한 준비이다. 이 변화가 지역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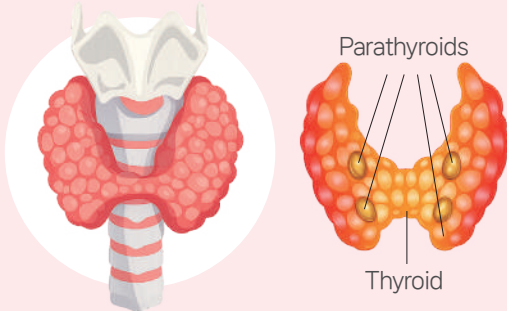
부갑상샘 호르몬은 무엇인가요?

투석환자와 부갑상샘 호르몬

투석실에서는 1~3개월마다 부갑상샘 호르몬을 검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석환자들은 부갑상샘 호르몬에 대해 매우 생소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며 꼭 아셔야 합니다! **부갑상샘 호르몬**은 무엇이고 왜 검사를 할까요?

부갑상샘의 위치

우선 부갑상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목 앞에 갑상샘이 있는데, 갑상샘 바로 뒤에 4개 정도가 있고, 영어로는 Parathyroid 라고 합니다. (갑상샘이 영어로 Thyroid 입니다.)



부갑상샘의 기능

부갑상샘은 호르몬을 내는 기관인데,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할 때 작동합니다.** 즉 몸에 칼슘이 부족한 것이 확인되면, 부갑상샘 호르몬이 방출되고, 그러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 혈액 속 칼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뼈는 칼슘의 저장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투석환자분들은 이런 부갑상샘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투석 환자분은 왜 **부갑상샘 호르몬** 수치가 높을까요?

비타민 D는 다들 들어보셨죠? 햇빛을 받으면 생기는 신기한 비타민, 비타민 D도 우리

몸의 칼슘 대사에 관여하는데, 바로 **비타민 D**가 있어야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비타민 D는 음식에 있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한편, **콩팥은 비타민 D를 활성화 시킵니다. 비타민 D는 활성화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팥이 좋지 않으면, 비타민 D의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활성화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을 통한 음식물의 칼슘 흡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액 속 칼슘이 낮아지고, 칼슘이 적으니 이를 부갑상샘이 알아채고, 부갑상샘 호르몬을 내놓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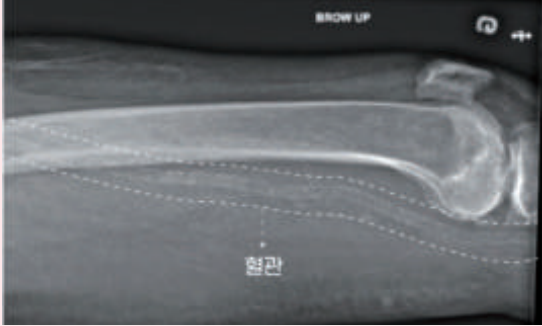
시중에서 나오는 영양제 중 **비타민 D 제제**는 사실 콩팥병 환자에게는 그리 효과가 없습니다. 어차피 먹어봤자 활성화를 못 시키기 때문입니다. 콩팥환자분은 활성화 된 **비타민 D 제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위에 설명드렸듯이 칼슘과 인을 상승시킬 수 있어 막 복용하시지 마시고,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 복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만성콩팥병 (4기 이상) 혹은 투석환자분들은 인이 높습니다.** 음식을 통해 들어온 인이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이 높으면 **비타민 D의 활성화가 저해되는 동시에** 여러가지 이유로(세포 내 칼슘 대사의 변화, 부갑상샘 세포의 증식, 칼슘 수용체의 감소 등) **부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합니다.

요약하면, **만성콩팥병환자나 투석환자분들은 비타민 D 활성화가 안되고, 인이 높아서 지속적으로 부갑상샘 호르몬이 방출되는 것**입니다.

투석환자에게 부갑상샘 호르몬

수치 상승이 왜 문제가 되나요?



X-ray에서는 뼈만 보이는데,
위 사진에서는 혈관도 하얗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갑상샘 호르몬이 많이 방출되면, 결국 뼈에서 칼슘을 뽑아냅니다. 즉 뼈가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뼈가 약해지고, 뼈가 아프기도 합니다. 어르신 환자분이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거나 하면 큰일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니 계속 누워계셔야 하는데, 누워있는 것 만으로도 흡인성 폐렴이나 혈전증 등으로 사망률이 30%가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서 방출된 칼슘이 이상한데 가서 들러붙으니 문제가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혈관과 심장에 들러붙는 것입니다.

칼슘이 붙어버리니 혈관과 심장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심혈관 기능이 떨어지게 되므로, 호흡곤란, 흉통, 기립성 저혈압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심혈관 합병증으로 인해 일찍 사망하게 하는 위험이 됩니다. 따라서 투석 환자분들은 부갑상샘 호르몬 수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갑상샘 호르몬이

상승한 경우 어떻게 치료하나요?

투석환자에서 부갑상샘 호르몬의 정상범위는 아직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일반사람들에게서 부갑상샘 호르몬 수치 정상 범위는 15~65(pg/ml)정도이나, 투석환자의 경우 대략 150~300 pg/ml 정도 범위를 목표로 합니다. (세계적인 가이드 라인 마다 약간씩은 권장범위가 다릅니다.)

부갑상샘 호르몬이 상승했다는 의미는 활성화된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치료는 활성화된 비타민 D를 추가하면 됩니다. 먹는 약도 있고 (본키, 원알파 등) 주사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갑상샘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드렸듯이 비타민 D가 들어가면 장에서 칼슘과 인 흡수가 증가되어 인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 조절이 안되는 환자분께서는 주의해야하며, 높은 인 자체로 인해 부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될 수도 있으므로, 인 조절이 잘 되어야 합니다.

부갑상샘 호르몬을 낮춰야하는데 인 조절이 너무 안되어 활성화 비타민 D 제제를 사용하기 꺼려진다면, 칼슘 유사체인 시나칼셋이 있습니다. (약이름으로는 레그파라, 베네프, 시나세트 등 이름만 다르고 모두 같은 성분입니다.)

이는 자기가 칼슘은 아닌데, 칼슘인 척 행동하여 마치 칼슘이 많아보이게 함으로써 부갑상샘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진짜 칼슘이 떨어지는 저칼슘혈증이 유발될 수 있어서 칼슘이 적은 분한테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 외 최근에 나온 약 중에서 젬플라(파리칼시톨) 라는 주사제가 있는데, 활성화 비타민 D 종류이긴 합니다.

하지만 장점이 부갑상샘에만 작용하고, 장에는 작용하지 않아 비타민 D로 인해 장에서 인 흡수가 증가되는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갑상샘 호르몬이

증가했다고 수술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약으로 부갑상샘 호르몬이 억제되지 않으면 결국 부갑상샘을 떼어내는 수술을 해야합니다.

왜그러냐면 부갑상샘이 몸을 배신하고 변했기 때문입니다. 즉 부갑상샘에 호르몬 분리를 하라고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 훗날 세포들이 변해 암처럼 됩니다. 자극이 없어도 계속해서 호르몬을 그냥 분비하는 것이지요.

세포가 변형이 온 것입니다. 그럼 약이 듣지도 않고 수술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배신한 부갑상샘 조직을 떼어내는 수밖에요.

한 줄 요약 부갑상샘 호르몬은 생소하지만, 투석환자에서 특히 중요한 호르몬이다!



출처 손닥터
건강정보 블로그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직접 글을 씁니다
내과전문의
혈액투석전문의
sondoctor.co.kr



수술 후 회복을 위한 단계별 요리



수술 직후에는 상처 회복을 위해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의 식사는 유동식, 연식으로 이행되며 그 이행 속도는 수술의 종류 및 환자의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위장관 수술을 받은 경우 우리 몸의 장기가 적응할 때까지 식욕 저하, 피로감, 복부 불편감, 답답함, 설사, 변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시기별로 식사 원칙을 잘 준수하여 식사를 진행하다 보면 섭취상의 어려움을 쉽게 이겨내고 정상적인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수술 후 원활한 식사 섭취를 방해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실제적인 불편감보다는 혹시 탈이 날까 하는 두려움이다. 특히, 위 절제술을 받은 경우가 가장 식사를 어려워하는데 수술 직후 주의해야 할 사항을 수술 후 몇 달이 지나서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밥을 먹어도 되는 시기인데도 수술 후 몇 주가 지나도록 죽 위주로만 먹는다면, 점차 식사량을 늘려도 되는 상태인데도 일부러 밥을 반 공기 이상은 먹지 않는 경우가 있다. 수술 후 적응 과정을 살피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걱정으로 식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도 빠른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여기서는 1단계 수술 직후와 2단계 진밥 단계로 나눠 메뉴를 제안한다.

경영지원실 영양팀 서다슬 영양사

- ✓ 수술 직후에는 장기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식사를 준비한다.
- ✓ 죽을 주식으로 할 때 흰죽만으로는 다양한 영양 섭취가 어려우므로 여러 가지 부재료를 활용해야 한다.
- ✓ 빠른 회복을 위해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하므로 어육류를 주재료로 한 반찬을 준비한다.
- ✓ 육류는 다질 필요는 없으나 기름기가 많거나 질긴 부분은 제거하고 조리한다.
- ✓ 육류 외에도 생선, 달걀, 두부 등의 단백질 식품을 번갈아 사용한다.



오늘의 추천 메뉴

장어덮밥



만드는방법

1. 장어는 먹기 좋게 손질한다.
2. 전분을 제외한 분량의 데리야끼양념 재료를 냄비에 넣어 조린 후 전분을 넣고 농도를 맞춘다.
3. 양파, 홍피망은 채썰고, 아스파라거스는 5cm 길이로 썬다.
4.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3의 채소를 센불에서 볶다가 소금을 넣고 재빨리 볶는다.
5. 장어에 데리야끼양념을 발라가며 팬에서 구워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6. 그릇에 밥을 담고 볶은 채소와 장어를 올려낸다.

재료 : 밥 140g, 장어 100g, 양파 30g, 홍피망 15g, 아스파라거스 10g, 식용유 2ml, 소금 약간
 데리야끼양념 : 간장 1큰술, 맛술 1큰술, 물 1큰술, 다시마 3g, 전분 3g, 참기름 2ml, 다진마늘 2g, 다진생강, 후추 약간

만드는방법

1. 건대추는 따뜻한 물에 30분간 불린다.
2. 불린 대추, 당근, 표고버섯, 청피망, 홍피망은 곱게 다진다.
3. 불에 다진 소고기, 2의 다진 재료, 달걀, 소금을 넣어 손으로 치댄다.
4. 치댄 고기반죽을 적당한 크기의 완자모양으로 만든 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완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골고루 잘 익힌다.
5. 4에 분량의 양념 재료를 섞어 넣고 살짝 조린다.

재료: 다진 소고기 80g, 건대추 20g, 달걀 15g, 당근 10g, 표고버섯 10g, 청피망 10g, 홍피망 10g, 소금 3g, 식용유 5ml
 양념 : 간장 15ml, 올리고당 10g, 참기름 5ml, 통깨 3g, 물 30ml, 후추 약간

대추고기완자



2025년 선린대학교 재정지원사업 성과확산포럼



선린대학교는 2월 6일 오후 3시 30분, 포항 라한호텔에서 교직원과 산업체 관계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선린대학교 재정지원사업 성과확산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선린대학교 박진환 총장 축사와 함께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 암센터 문덕홍 진료과장은 2025년 본원에서 실습한 선린대학교 간호대학 4학년 간호실습생들에게 10여 차례 특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진행된 행사에서 그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였습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은 지난 2025년 4월 16일 선린대학교와 산학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체결을 맺은 바 있어, 이번 포럼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성과확산포럼을 통해 선린대학교와 고려대련요양병원은 산학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지역사회와 의료 및 교육 분야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경영지원실 총무과 **황욱** 과장

환자 의뢰·회송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는 지역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진료 연계 및 환자 의뢰·회송 체계 개선을 위하여,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료협력 실무자 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4월 8일 고려대련요양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실무자 간 의뢰·회송 과정 중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본원 이준엽 상임이사는 자리에서 "협력 강화의 방향과 핵심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후 자리를 이동하여 병원 내 라운딩을 실시하였습니다.

칠곡경북대학교 진료협력센터 박지애 팀장은 "앞으로도 환자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역의 대표 병원으로서 고려대련요양병원이 그 역할을 다 해 주길 바란다."라고 뜻을 전하였습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은 환자의 원활한 의뢰·회송을 위하여 전국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25곳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간호부 4병동 **한승희** 팀장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슴에 담다



지난 3월 12일 오후, 고려대령요양 병원 로비에서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간호사 선생님들과 함께한 '간호사(RN) 휘장 달기 캠페인'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돌보고 건강 회복을 돕는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던 뜻깊은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러 김숙자 대외협력이사는 "간호사로서의 깊은 자긍심을 잊지 말고, 언제나 환자분들에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는 진심 어린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후 캠페인의 하이라이트인 휘장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간호부를 대표하여 2병동 김경모 간호팀장이 김숙자 대외협력 이사로부터 직접 휘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힘차게 구호를 제창하며, 환자를 향한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오늘날의 RN 휘장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간호사의 전문직 정체성, 윤리, 봉사 정신을 상징하는 표식이자, 환자분들에게 전하는 '신뢰와 책임감'의 약속입니다. 왼쪽 가슴에 빛나는 휘장처럼, 앞으로도 간호 전문직의 가치와 전통을 이어가며 환자분들의 빠른 회복과 편안한 요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호부 2병동 김경모 팀장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된 본 캠페인은 본원 간호사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안광욱 병원장은 이날 간호사 휘장이 가지는 오랜 역사와 그 속에 담긴 숭고한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간호사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간호사(RN) 휘장이란 무엇일까요?

간호사 유니폼 왼쪽 가슴에 빛나는 RN 휘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RN은 'Registered Nurse'의 약자로 국가 면허를 취득한 정식 전문 간호사를 의미하며, 휘장은 간호 전문직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나타내는 자랑스러운 상징물입니다.

2026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FIRST TRUSTED PREMIUM BRANDS



포브스코리아중앙일보가 시장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최고 브랜드를 엄선했다. 브랜드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매개체다. 소비자 만족도와 브랜드 신뢰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215개 기업·기관의 221개 브랜드를 소개한다. 포브스코리아 브랜드디드 콘텐츠 유닛

2026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수상

고려대련요양병원이 전국 요양병원 중 최초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최고의 브랜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2026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요양병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지역 의료 기관으로서 전국 단위의 공신력 있는 브랜드 평가에서 정상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의 인지도와 만족도, 신뢰도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품질과 지속 가능성 등을 엄격히 종합 평가하여 선정됩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은 단순한 '장기 입원 시설'이라는 요양병원의 기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고도의 전문 의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체계적인 환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이끌어 냈습니다.

맞춤형 재활·통합 돌봄으로 포항 의료 복지 선도

본원은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에 위치한 300병상 규모로 전문 재활치료부터 통합 함양면역 케어, 인공신장실(혈액투석), 만성질환 집중 관리 등 분야별 특화 진료 체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최신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을 바탕으로 환자 개별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최근 급증하는 회복기 환자와 고령 만성질환자의 의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고려대련요양 병원만의 '의료·복지 연속 케어 체계'입니다. 병원은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를 연계한 통합 운영 시스템을 통해 입원 치료 이후에도 장기요양 입소나 낮 시간 돌봄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어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은 상황에 맞춰 병원 치료와 시설 돌봄 중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폭넓은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고려대련요양병원의 이준엽 상임이사는 "이번 수상은 포항 시민과 환자, 그리고 보호자 여러분이 보내 주신 변함없는 신뢰와 응원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포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중심 요양병원 모델을 더욱 고도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책임을 다하는 병원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요양병원의 브랜드 가치와 의료 전문성을 국가적으로 공인받은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전략실 이준엽 상임이사

노들강변에서 아리랑까지, 추억과 감성의 하모니 공연



지난 2월 11일 고려시니어케어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한 문화공연이 있었습니다. 웃음치료로 시작되어 팬플룻과 민요, 흥해농요 공연으로 어르신들께서 익숙한 가락에 맞춰 즐기셨습니다. 특히 하모니카 연주가 깊은 감성을 불러일으켰고,

어르신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공연은 '희망가' 에어로폰 연주와 '아리랑' 함께 부르기로 마무리되었으며,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활력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설 연휴,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전통놀이



지난 2월 17일, 고려시니어케어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하는 '추억의 옛날 유과 만들기'와 '전통 투호놀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의 중심은 전통 간식 유과 만들기로, 동그란 병뚜기에 조청을 바르고 쌀튀밥을 굴러 붙이는 과정을 통해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 명절 풍경을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옛날에는 명절이면 직접 튀밥을 만들어 유과를 만들곤 했다"라며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나눴습니다.



투호놀이도 함께 진행되어 세대 간 소통과 친밀감을 높였습니다. 직접 만든 유과를 맛보며 어르신들은 정성과 성취감을 느꼈고,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고 가족 간 정서적 교류를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지팀 정인옥 사회복지사

봄을 담은 손끝, '나비정원 꾸미기'



지난 3월 17일, 따뜻한 봄날 어르신들과 함께 '나비정원 꾸미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종이접시 위에 색색의 꽃과 나비를 자유롭게 꾸미는 활동으로, 어르신들은 각자의 개성을 담은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셨습니다.

색칠과 꾸미기 과정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대화하는 등 즐거운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들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소근육 및 인지 능력 자극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여가인기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움과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봄과 함께 찾아온 생신 ♥ . * *



지난 3월 23일, 고려시니어케어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신을 기념하는 생신잔치를 가졌습니다. 직원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생신 축하 노래를 부르고, 정성껏 준비한 떡케이크와 간식을 나누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환한 미소로 화답하시고 익숙한 노래를 함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라는 따뜻한 말씀과 함께 현장은 웃음과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헤어스타일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미용 재능기부 업무협약

지난 2월 10일, 고려데이케어센터 생활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정기 이미용 봉사활동 운영을 위해 아우라뷰티칼리지 미용학원 포항 캠퍼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우라뷰티칼리지 미용학원 포항캠퍼스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마다 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커트 및 스타일링 등 이미용 서비스를 재능기부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 봉사활동 진행

봉사자분들의 정성 어린 손길로 어르신들의 머리가 단정하게 정리 되었으며, 어르신들께서는 "머리를 손질하니 기분이 좋아진다"라며 환한 미소를 보이시는 등 큰 만족감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서로 달라진 모습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즐거운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정지원팀 서영채 시설장

건강한 하루의 시작, 아침 건강 루틴



혈압확인



체온확인



아침체조

고려데이케어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매일 아침 건강 루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원 후에는 전문 물리치료사가バイタル 체크를 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여부를 살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건강 체크 후에는 사회복지사가 진행하는 간단한 아침 체조를 통해 몸을 가볍게 풀고 활기찬 하루를 준비합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어르신들께서는 자연스럽게 몸의 긴장을 풀고 활력을 되찾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2월에 생신을 맞이한 **어르신 축하 행사**

2월 25일, 고려데이케어센터에서는 1, 2월에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 열두 분을 모시고 따뜻한 생신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케이크와 다과를 함께 나누며 생신 축하 노래와 덕담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펼쳐진 노래자랑에서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박수로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함께 축하해 주니 너무 기쁘다"라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생활복지팀 **김은성** 사회복지사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

신나는 문화공연 '난타'

3월 10일, 본 센터에서 음악 공연이 있었습니다. 실버 노래교실에는 난타 공연팀이 방문하여 신나는 북소리와 힘찬 퍼포먼스의 특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은 박수와 함께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공연 후 어르신들은 "신나고 재미있었다", "오랜만에 이런 공연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밝은 표정을 전하셨습니다.



다사랑문화예술단

어르신들, 다시 젊은 시절로

3월 19일, 고려데이케어센터에서는 송림밴드가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색소폰 연주와 경쾌한 노래가 어우러진 공연 속에서 어르신들은 박수와 함께 몸을 흔들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특히 몇몇 어르신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며 공연을 더욱 즐겼고, 한 어르신은 "색소폰 소리가 너무 좋아 계속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등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고려데이케어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즐거운 일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림밴드

아름다운
우리의
얼굴

황, 옥

경영지원실 총무과장

세 번째
인연



안녕하십니까?고려대련요양병원 경영지원실 총무과장 황옥입니다.

먼저, 저희 병원을 사랑해 주시고 고려소식지를 꼼꼼히 챙겨 봐 주시는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름다운 우리의 얼굴' 세 번째 주인공으로 저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서양화 화가이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물감 냄새를 맡으며 예술적인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예술보다는 운동을 더 좋아해서 숨이 턱까지 차도록 제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을 좋아하며, 요즘은 테니스를 하며 삶의 활력소를 얻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공부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체육에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체육장에서는 늘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체육 선생님의 체육고등학교 진학 권유를 받으며 중학교 시절을 지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느라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으며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다 우연히 학교 악대부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악대부는 선후배 간 기강이 워낙 엄격해서 음악생활인지 조폭생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너무 힘들어 탈퇴를 결심했지만 '빠따 100대'라는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이 빠따 100대가 25년간 한 개의 전문 연주자 팀과 두 개의 아마추어 팀에서 음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은 본원과 인연이 있는 분들을 연중 두 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 육군군악대로 입대하여 멋지고 화려한 군생활을 했습니다. 군악대, 의장대, 헌병대의 기강과 군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격합니다. 제대 후에는 대학에서 지형공간정보학을 전공했고, 국내 3대 측량회사에서 10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중 두바이 장기 출장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 곁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할 것 같아 사직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가족의 희생을 감수하고 제 커리어를 위한 외길을 걸었다면 지금과 많이 다른 삶을 살았겠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후 포항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현재의 밑바탕을 닦았습니다.

인생의 전, 환, 점

병원에서의 근무 생활 10년 차 시절, 장인어른의 요청으로 운영하시는 사업체에서 일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곳 고려대련요양병원 개원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지원을 하여 병원 업무를 다시 시작하며 저의 적성이 이곳에 더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구 고려달전요양병원에서 개원하면 알아야 할 것, 필요한 것들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2019년 1월, 오픈이 임박해지면서 책상과 컴퓨터, 인터넷, 전화 등이 설치되고 병원 전산에 기초자료를 입력하며 한 달 넘게 환우분들을 맞이할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초기에는 매일이 새롭고 어색한 동시에 힘듦의 연속이었지만 임직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 병원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6년 3월 9일 고려대련요양병원이 개원한 지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차례 사직서를 쓰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함께한 동료들 덕분에 지금까지도 소중하고 감사한 자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성장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 주셨던 이준엽 상임이사님, 현장에서 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숙자 대외협력이사님, 그리고 묵묵히 제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영희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차례의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무사히 마친 경험과 수차례 큰 행사들을 기획하고 지휘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지역의 많은 요양병원들과 차별화된 병원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저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만의 '선순환 구조인 의료복지복합체'를 기반으로, 포항 지역 환우분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의 자리에서 최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과 저를 아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 맛이 꽃 화분 만들기



지난 3월 19일,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날에 암 병동 환우분들과 함께 꽃 화분 만들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은한 향기를 머금은 노란 프리지어와 안개꽃, 그리고 싱그러운 편백나무를 하나씩 손에 들고 만들어 나가는 순간, 병동 안에는 봄이 한가득 피어났습니다.

같은 꽃을 사용했지만, 완성된 꽃 화분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완성된 작품이 있는가 하면, 화사하고 생기 넘치는 작은 꽃밭처럼 꾸며진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자의 취향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하던 손길도 시간이 지날수록 한층 여유로워졌고, 곳곳에서 웃음과 담소가 이어졌습니다. 꽃을 만지는 짧은 시간 동안 환우분들께서는 일상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현재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환우분들께 감사드리며, 따뜻한 지도와 배려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주신 강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환우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사회복지팀 김정예 사회복지사



‘오로지둘레길’ 걷기, 힐링의 하루

지난 3월 25일 본원 암 병동 환우들과 함께 포항 운제산 자락에 위치한 신라 천년고찰 오어사와 명품 둘레길 ‘오로지 둘레길’을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한 날, 환우분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일정은 오어사를 출발해 오어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약 7km 코스로 진행되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이어진 산책길은 완만하고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어 환우분들도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었으며, 길 곳곳에 피어난 진달래와 잔잔한 저수지 풍경이 어우러져 걷는 내내 편안함과 여유를 맘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차량 정체나 붐비는 인파 없이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 더욱 쾌적한 시간이었습니다. 환우분들은 자연스럽게 걸음을 맞추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곳곳에 마련된 쉼터에서 잠시 쉬어가며 봄날의 정취를 온전히 느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산책이 아닌, 일상 속에서 쌓인 긴장을 풀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걷기 활동 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오리백숙으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였습니다. 식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어진 대화 속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이후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더욱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시간은 환우분들 간의 유대감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환우분들은 서로 담소를 나누며 하루의 여운을 이어갔으며, 병원 도착 후에는 각자 병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나들이에 참여한 환우분들께서는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번 나들이는 단순한 외부 활동을 넘어, 환우분들의 신체적 건강 증진과 더불어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생활로 인해 자칫 지치기 쉬운 일상 속에서 이러한 경험이 작은 심이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원은 환우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의 시간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환우분들의 건강과 웃음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영지원실 사회복지팀 권윤경 사회복지사





달콤한 향기로 전한 개원 7주년 감사 행사

고려대런요양병원은 개원 7주년을 기념하여 환자분들과 직원들을 위한 '행복 빵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직접 구운 모카번을 준비하여 병원 곳곳에 나누어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자분들은 달콤한 빵 냄새와 맛에 큰 기쁨을 표현하였고, 직원들도 잠시나마 달콤한 휴식을 즐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작은 나눔이었지만 병원 내에서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병원은 환자분들과 직원들이 함께 웃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사회복지팀 권윤경 사회복지사

설 맞이 전통놀이, 환자들과 따뜻한 명절 나눔



병동에 설맞이 전통놀이 프로그램이 환자분들과 함께 뜻깊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설날 행사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병동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투호와 고리던지기 게임으로 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각 종목은 1인당 10개의 도구를 던져 가장 많은 성공 횟수를 기록한 분이 1등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거리와 난이도를 조절해 환자분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되었으며, 환자분들은 집중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공할 때마다 환하게 웃고 박수가 이어져 병동 전체에 설날의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행사 마무리에는 참여자들에게 간식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환자분들과 함께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뜻깊은 설맞이 전통놀이 시간이었습니다.

경영지원실 사회복지팀 권윤경 사회복지사

고려대련요양병원, 보건소·시청·119와 합동 산불 대피훈련 성공적 시행



최근 건조한 봄철 기후와 영덕 산불 사건 등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 소재 고려대련요양 병원은 3월 18일 포항시 보건소의 요청으로 포항시청, 흥해 119 안전센터와 함께 합동 산불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 병원에서 처음 실시한 산불 특수재난 대비 대피훈련이었지만, 참여한 전 직원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환자 상태에 맞춘 세심한 맞춤형 대피 방안이 돋보였습니다.

와상, 휠체어, 거동 가능한 환자의 상황에 맞게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보건소 관계자는 "고려대련요양병원의 정확하고 실질적인 훈련 진행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대피 동선 구축 사례는 모든 의료기관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환자 생명과 안전이 병원의 사명인 만큼 이번 훈련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떤 재난 상황에도 환자가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안전 파수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산불 대피훈련은 향후 포항시와 흥해 지역 산불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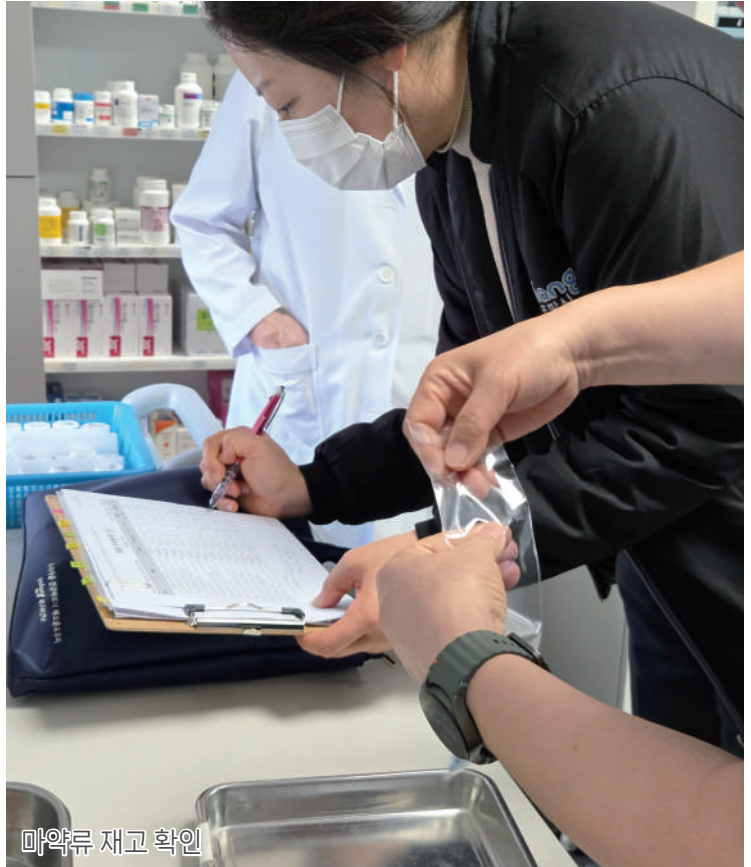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고려대련요양병원의 노력이 지역 사회와 의료 현장에 모범적인 사례로 남길 바랍니다.

경영지원실 시설관리과 박준현 과장

2026년 요양병원 지도 점검 실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목표



소방 및 시설 점검



마약류 재고 확인



교육 훈련 점검

고려대런요양병원을 포함한 포항시 관내 21개 요양병원이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요양병원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요양병원의 의료법 준수 및 마약류 관리법 준수를 중심으로 안전한 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 보건행정이 주관합니다.

점검은 의약품 및 마약류 감시원 2인 1조가 각 기관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산림 인접 의료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상반기 점검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병원은 하반기에 추가 점검을 받게 됩니다.

포항시 보건행정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요양병원 내 불법 의료행위 예방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직원들의 대응

능력을 높여,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준수,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법상의 재고 확인과 적정성 관리, 의료기관 안전관리 및 환자 위생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불법 의료행위 또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원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환자 안전과 예방 활동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감염관리팀 박지희 간호사

자재교육
연 6 회

1차 신규직원교육 실시



자재교육
연 6 회

2차 신규직원교육 실시



직원복지
연 2 회

임직원 명절 선물 전달



자체점검
연 2 회

명절 특별 위생 점검



병실허가
수시

1병동 신규 병실 경북도청 허가 완료



자재교육
연 6 회

에어컨 필터 점검



자체점검
연 1 회

봄 맞이 병원 외각 대청소



이달의 친절직원

1월



재활센터
이민지 작업치료주임

2월



영양실
금주영 조리사

3월



시설관리과
임헌주 사원



친절직원 게시판 소개

시설관리과 임헌주 선생님

세월이 흘러 병원의 이곳저곳 수리할 것도 많고 손볼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찡그림 한 번 없이, 화사한 산타클로스과 같은 미소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임헌주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응원합니다.

2병동 진기연 선생님

실습 기간 동안 다양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정말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었는데, 잘 적응한 것도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습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저도 선생님처럼 따뜻하고 세심하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진기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응원에 감사드리며, 저 또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김진식 선생님

김진식 선생님께서는 항상 웃는 얼굴로 환자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십니다. 언제나 먼저 다가와 웃으며 인사와 대화를 나누어 주시고, 환자분들이 궁금한 점을 물으면 성심껏 답해 주십니다. 환자로서 선생님의 친절함에 깊이 감사드리며, 배울 점이 많아 진심으로 칭찬드립니다.

2병동 김수진 선생님

바쁜 와중에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친절한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김수진 선생님을 롤모델 삼아 열심히 공부하여 저도 미래의 실습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실습 내내 두려움보다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수진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재활센터 이민지 선생님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을 물을 때마다 바쁘신 와중에도 다가와 웃으며 일일이 친절하게 답해 주십니다. 환자의 손톱과 발톱도 가지런히 깎아 다듬어 주시는데, 냄새나거나 불결함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으십니다. 치료 중에도 다정한 말투와 손길로 어머니께서도 많은 칭찬을 하시고 계십니다. 치료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병동 간호사님들까지 미소와 친절로 대해 주셔서 이 겨울,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좋은 분들을 다른 분들께 꼭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센터 이현석 선생님

친절하게 잘 치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활센터 차대한 선생님

성실하고 근면하며, 항상 친절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직원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태도와 자세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오랫동안 자랑스러운 직장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수치료실 이현석 선생님

열 번 물어봐도 명확하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사회복지팀 권윤경 선생님

항상 밝게 웃으시며 친절하게 환자분들을 대해주셔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암 환자분들은 언제나 두렵고 우울하며 힘든 상황에 있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모습 덕분에 저희도 힘을 얻고 기운이 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규직원 소개



2병동
최슬 간호사



3병동
김원규 간호사



4병동
오지훈 간호사



4병동
유호정 간호사



4병동
김경숙 간호조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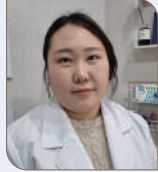
QI팀
이화진 간호사



인공신장센터
전현진 간호사



집중치료실
최영미 간호사



영양팀
김민선 영양사

약제과에 새로운
+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



원내약국
김관수 약사

-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한미약국
- 신아약국
- 건강한약국
- 하나요양병원 약제과장
- 윈더스요양병원 약제과장



간호팀
정은영 간호사



간호팀
채지혜 간호사



요양팀
김말숙 케어프로



요양팀
김순정 케어프로



요양팀
남순태 케어프로



요양팀
이초원 케어프로



요양팀
정연욱 케어프로



요양팀
정용순 케어프로



재활팀
장진선 물리치료사



생활복지팀
김은성 사회복지사



요양보호팀
양손희 케어프로



요양보호팀
장은희 케어프로



요양보호팀
손유정 케어프로



요양보호팀
안욱식 케어프로



행정지원팀
최현주 사무원

승진을 축하합니다.



김 태 희
케어프로 → 케어프로 팀장

고려대련요양병원 진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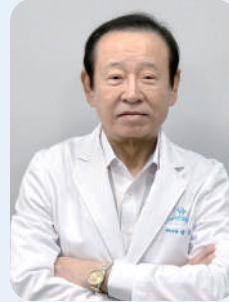


안광욱 병원장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중앙대학교 외래교수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 대구 효성병원 소아병원 병원장

진료분야

일반내과
당뇨·고혈압, 노인성 질환



강홍일 진료과장

- 산부인과 전문의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울산 효림요양병원 투석실 진료원장
- 인천 뉴성민병원 응급실 진료과장
- 대구 한솔요양병원 투석실 진료원장
- 진운노인전문요양병원 진료원장
- 의정부 다우리내과 투석실 진료과장

진료분야

혈액투석, 일반내과
당뇨·고혈압, 노인성 질환



예재명 진료과장

- 산부인과 전문의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 신세계산부인과 원장
- 고려달전요양병원 진료과장
- 영덕효요양병원 진료과장

진료분야

일반내과
당뇨·고혈압, 노인성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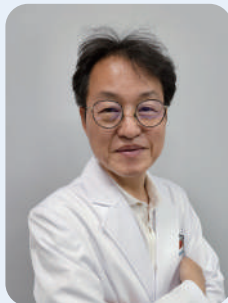


문덕홍 진료과장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춘해병원 부산대병원 신경과 전공의 수료
- 삼세한방병원부속 삼세의원 원장
- 동의대한방병원부속 동의의원 과장
- 조흥의원 원장
- 상록수요양병원 진료과장
- 고려대련요양병원 진료과장
- 위너스자연요양병원 진료원장

진료분야

고주파온열암치료, 면역주사치료
항암치료 부작용 관리, 암재활치료



오상향 진료과장

- 재활의학과 전문의
-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건양대학교병원 진료과장
- 흥성병원 진료과장
- 현대프라임요양병원 진료과장
- 보니파시오요양병원 진료과장
- 백세요양병원 진료과장
- 워크런병원 진료과장

진료분야

뇌졸중 재활, 근골격 통증치료(척추 및 어깨관절, 무릎관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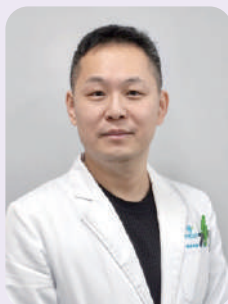


변영휘 한방과장

- 대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 포항 이동한의원 원장

진료분야

침구과, 한방 내과·한방 재활의학과
근골격계 통증치료



양정훈 한방과장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세양요양병원 한방과장
- 논산시 보건소 공중보건의

진료분야

뇌졸중 한방 침구과, 한방 내과
한방통증치료 및 재활



김은곤 한방과장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 여주 시애노요양병원 한방과장
- 강원원주 민중병원 한방과장
- 천안아산 녹십자요양병원 한방원장
- 용인 성북한의원 대표원장
- 서울 김운곤한의원 대표원장
- 서울 성원당한의원 대표원장

진료분야

침구과, 한방 내과, 한방 재활의학과
노인허리 수술 후 허약, 한방 부인과

요양병원 입원대상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기간이 있는 자로
 의학적 치료와 영양을 필요로 하는 자

종류		치료대상	치료 및 프로그램		
노인 요양	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성 질환 어르신 만성기 질환 어르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과적 진료 및 치료 체계적인 식단 관리 전문재활 프로그램 사회복지 프로그램 		
	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추신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뇌졸중, 뇌손상 척수손상, 파킨슨병 근골격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경계 손상 신경마비 환자 수술 후 재활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뇌졸중 재활치료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 성인운동치료 성인작업치료 도수치료 통증치료 		
항 암	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 수술 전 체력관리 암 수술 후 회복관리 항암/방사선 병행관리 일상회복 후 지속적 관리 재발/전이방지 말기 암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주파 온열 치료* 고압산소 치료 암 면역 치료 	주 2~3회 정기적 치료	
	입원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주파 온열 치료* 고압 산소 치료 암 면역 치료 암 식이관리 	2박 3일 내외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주파 온열 치료* 고압 산소 치료 암 면역 치료 암 식이관리 힐링 프로그램 	1달 이상 입원
투 석	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기 신부전증 환자 부종이 심하거나 요독 증세가 심한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혈액 투석 치료 → 약 2시간부터 시작 이후 상태에 따라 증가함 	월/수/금 화/목/토 투석 실시	
	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 1회 4시간, 주 3회 시행 		

* 온코써미아(고주파온열치료기)는 국내외 주요 대학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로 경북 최초 2대 보유 요양병원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새마을로 318-12
 대표전화 054 - 241 - 1011
 홈페이지 www.goryomcc.com
 블로그 blog.naver.com/goryomcc

고려대련요양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외래	의사	진료분야	진료요일	
			오전	오후
재활의학과	오상향	뇌졸중 재활, 근골격 통증치료(척추 및 어깨관절, 무릎관절)	월~토	월~금
암케어	문덕홍	고주파온열암치료, 면역주사치료, 항암치료 부작용 관리, 암재활치료	월~금	월~금
투석	강홍일	혈액투석, 일반내과, 당뇨·고혈압, 류마티스 내과	월~금	월~금
한방과	양정훈	한방통증치료 및 재활, 뇌졸중 한방 침구과, 한방내과	월~금	월~금
	변영휘			

• 재활의학과 토요일 진료는 격주로 진행되오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친화적인 프리미엄 요양원으로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운영



[이용자격]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 판정 어르신
- 치매, 뇌졸중,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

[이용절차]

전화 혹은 방문상담 이후 입소 확정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 189
 대표전화 054 - 262 - 2022
 홈페이지 www.goryoseniorcare.com
 블로그 blog.naver.com/goryoscs



전국 최대규모의 주간보호센터
 송영, 식사, 운동재활, 인지재활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

[이용절차]

전화 혹은 방문상담 이후 등원 계약서 작성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학전로 127 2층
 대표전화 054 - 246 - 3033
 홈페이지 www.goryodcc.com
 블로그 blog.naver.com/goryodcc